"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룹 '지오디(god)'의 노래 '길'의 일부다. 유행가의 한 구절로 지나칠 수도 있으나, 불교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다. 우리는 저마다 오늘을 살고,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길을 되돌아보면 평탄하지도, 올곧지도 않으며, 그 발자국은 자신만의 것이 아닌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자신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는 윤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 수행한다. 윤회를 통해 지금의 삶을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혀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다가오는 삶의 모습이 자신을 둘러싼 인연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 그 힘으로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과 이해가 없이,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내일은 그로 인해 하루 더 늙고, 하루 더 지친 날로 다가올 뿐이다.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이끌어 가는 것을 '업'이라 한다.

저마다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길
그 길은 평탄치도 올곧지도 않아
목적을 깨닫고 길 걷는 삶 살길

똑같은 하루라도 업으로 산다면, 그 업력에 의해 끌려가는 하루가 되고, 자신의 일을 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기 바쁘고, 내면이 아닌 외부에 이끌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하루를 법답게 산다면, 윤회의 하루일지라도 자신이 그 길을 이끌고 가게 된다. 설령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자신이 그곳으로 간 것이기에 다시금 발걸음을 되돌려 나올 수 있고, 다른 길로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때 불교에서 말하는 참다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라는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목적도 아닌 오늘도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큰 목적(꿈)을 찾아 고민하고 헤맨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긴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을 갖고 시간을 보낸 적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기에 큰 목적에 앞서 그 하루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오늘 하루는 다시금 지나간 어제로 다시 남아버릴 것이다.

〈청정도론〉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 가르침과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핵심은 바로 '연기(緣起)'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인연과 결과의 이어짐 속에 존재한다. 만약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주변의 인연과 그것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살펴봐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설한다. 내 주변의 일이 나와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참나, 참사람, 참다운 삶 등 최근 들어 이 '참'에 관한 표현이 부쩍 늘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참'답지 못한 것이 많아졌고, 그에 대한 갈증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참'은 연기로 인해 생겨난다.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외면이 일원화된 모습으로 길을 걷는 자신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 그 끝에서 꿈을 발견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자.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오늘 하루이다.

장애인과 의사소통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구 중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통계를 살펴보면서 세상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타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어떤 찰나의 인연에 의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자타불이(自他不二)."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참다운 인권의 실천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강요한 무언의 차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을 향한 선택으로 세상과 어우러진 보통의 삶을 원한다.

장애인들은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며 세상을 변화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동권, 주거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 현실적 권리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고 이들의 노력은 많은 제도의 마련과 실천적 성과를 가져왔다.

佛說엔 장애, 비장애 분별 없어
모두가 소중한 부처님 제자들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야

그러나 언어, 청각,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인 등 대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은 제도가 마련 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의사를 바로 전달할 수 없고 세상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평등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충분한 수어 통역과 노동, 교육에서의 소통 환경 개선, 대체 의사소통(AAC)의 활용,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등 폭넓은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 보조 기기센터, 의사소통 전문가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연대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 소통의 장벽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불자로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슬라이드를 보듯 지나간다. 이 세상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 인연으로 설켜 있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두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누구 하나라도 소통의 부재로 소외되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는 게 불제자로서 함께 가는 동행이다.

불교계에서도 장애인을 시혜와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장애인 중심의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좋은 모델을 발굴했으면 한다. 또한 포교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환경조성에 관심을 두고 장애불자들이 누구나 소통의 벽 없이 포교 활동을 하도록 통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社 說

비구니 군승 약진 기대한다

군(軍)은 전통적으로 금녀의 공간이었다. 한국에서 여군 창설은 1950년 9월 6일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발족된 여자의용군교육대를 기점으로 본다. 하지만, 대부분 한정적 보직에만 머물며 진급에도 많은 차별을 받았다. 첫 여성 장군은 2002년이 되서야 간호병과에서 배출됐다.

이는 군종장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승의 경우 1951년 불교종군포교사회의 창립으로 시작됐으며, 1968년 첫 군승장교가 배출됐다. 이후 2014년 비구니스님이 군승으로 파견되기까지는 46년이 걸렸다. 명법 스님이 첫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지 꼬박 10년이 지났다. 10년 이후 비구니 군승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올해 군승 소령 진급자 3명 중 2명이 비구니 군승이었고 균재 스님은 비구니 스님 최초로 해외 파견에 나선다.

스님은 9월 2일부터 레바논 동명부대 30진으로 8개월 간 파병된다. 파병 인원 중 군종장교는 균재 스님이 유일하다. 스님은 현지에서 국군 장병들과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며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신앙 활동, 심리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조직의 관습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유리천장'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비구니 군승들의 노력들은 군대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비구니 군승들의 약진이 더욱 기대된다.

불교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필요하다

8월 19일 조계종과 동국대가 개최한 특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은 설문을 통해 '사람들이 불교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섯 비구에게 법륜을 굴리신 이후, 40여 년을 맨발로 다니며 스스로 법을 전하셨다. 이는 각 지역 국가, 타종교 신앙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 행위다.

부처님 입멸 이후에도 제자들은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 법을 전하며 대중과 소통해왔다. 경전 내용을 담은 불화와 변상도, 땅설법으로 남아있는 속강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18년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발견된 불교 대중극 대본 〈연희대본〉은 얼마나 대중과 친밀하게 불교가 소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들이다.

현재 '힙한 불교'가 열풍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불교는 단 한번도 '힙'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은 대중과 더욱 힙하게 소통하는 창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될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이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편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